

90.8.26

公害 추방에 발벗고 나선다

서울 象牙아파트 주부 鄭대은씨를 비롯하여 아파트 13가구 주부들은 매주 화요일이면 산지에서 직거래된 무공해식품을 공급받는다. 「함께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회원들이 이들은 번갈아가며 대표를 정해 1주일치 먹을 무공해식품을 공동구입하고 공동분배한다.

가격이 조금 비싼다고 단체로 구입·분배하는 일이 성가실 때도 있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공해에 오염되지

있다.

이들은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가연성·재활용·음식찌꺼기 세가지로 분리해 버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또 우리의山河를 더럽히지 말자는 캠페인도 벌인다. 뿐만아니라 번거

로운 공해로부터 보호돼야겠다는 일종의 가족이기주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이후 공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아지고 2~3년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취지를 표방한 한

있다. 서울 北加佐洞 漢陽아파트의 경우 두달안에 6백40가구중 46가구가 「함께가는 생협」에 가입할 정도로 주부들의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주

「함께가는 생협」의 徐愚蘭전무이사는『이같은 경향은 현재로서는 서울의 중산층에 국한돼있지만 머지않아 지방의 중소도시나 서민층에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주부들의 이런 관심이 우리 가족, 우리환경을 지킨다



「함께 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회원인 서울永登浦區 象牙아파트 주부들이 배달된 무공해식품을 분배받고 있다. <吳鍾鐸 기자>

主婦문화 이렇게 달라진다

⑭

많은 식품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된다는 생각에서 수고스러움을 감수한다.

서울 南加佐洞에 사는 주부 이정순씨(38)는 세탁용 가루비누나 주방용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힘이 좀 들긴하지만

“환경오염은 우리가정 건강과 직결”

합성세제 삼가고 無公害식품 선호

빨래는 빨래비누로, 설거지는 밀가루를 세제 대신 사용한다. 3년전 공해가 심각하다는 강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약이나 합성세제·산업폐수등으로 농토가 황폐화되고 물·대기 오염물질·농작물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등 우리사회의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해로부터 파괴되는 우리환경을 지키겠다는 주부들이 점차 늘고

로움을 무릅쓰고 產地와 직거래한 무공해식품을 구입하거나 천연조미료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자녀들을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주부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80년대 중반이후부터. 발단은 유해광나물과동·두부과동 등을 겪고 7~8년전부터 상품화된 무공해식품이 공급되면서 일부계층이 이를 구입, 우리가족

살림소비자협동조합「정농회 소비자협의회」「함께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등이 생겨나면서 주부들의 공해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층 심각해졌다고 한살림消協의 尹熙進간사는 말한다.

현재 이 세단체의 회원은 모두 주부로 4천여명정도. 한살림消協은 專業主婦들로 구성된 이사진으로 출발했으며 나머지 두단체도 오로지 주부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부아카데미협의회, 공해추방운동연합여성위원회 등 6개단체가 「수도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두 홍보를 했으며,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주축이된 쓰레기분리수거운동은 시작 5개월만에 4만가구로 확산되는등 주부들의 환경보호에대한 관심은 「우리가족만」에서 「우리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는 측면외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뜨는 계기도 될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文敬蘭기자>